〈부록〉 옥수동 미타사 복장 전적의 일부 이미지 (한글박물관 소장『월인석보』권9, 10의 낙장 보충)

자료제공: 김성주

2020년 8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미타사의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복장 조사에서 수습된 복장 전적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월인석보』권7, 8, 9, 10(일부 결락 있음)이 들어 있다.

미타사는 한양 도성 남쪽 외곽의 한강변에 위치한 사찰로 매봉산과 달맞이공원으로 이어지는 능선 안쪽에 위치하는데 조선 후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미타사 극락전에는 아미타삼존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각각 목조아미타불, 건칠관세음보살, 목조대세지보살 등이다. 이 아미타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복장 유물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조아미타불상에서는 조성발원문(1707년) 1점, 중수발원문 2점(1744년, 1917년), 또 다른 조성발원문(1757년), 후령통 1점과 함께『월인석보』권7, 8, 9, 10의 부분,『법화경』권4~7,『부모은중경』1책이다. 목조대세지보살상에서는『월인석보』권8, 10의 부분,『법화경』6점이 수습되었고 건칠관세음보살상에서는 조성발원문 1점, 후령통 2점, 주서 다라니 137매, 유리잔, 보석류 등이 수습되었다.

미타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복장 전적 중 우리의 관심의 끄는 것은『월인석보』권7, 8, 9, 10이다. 현재『월인석보』권7, 8은 초간본이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월인석보』권9, 10은 초간본이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월인석보』권7, 8의 경우 발견 당시 초간본의 상태가 훼손이 많고 결락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책을 수리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메우고 문면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복원된 내용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인석보』 권7, 8의 동국대 영인본을 비롯한 영인본은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이 국어학계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타사 복장 전적으로 수습된 『월인석보』 권7, 8의 일부로 이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복원된 내용이 책 전체에 걸려있어 당시의 복원 내용을 파악하고 이 중 잘못된 부분을 잘못 잡는 것은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 안동 광흥사에서도 간기 미상의 『월인석보』 권7, 8 중간본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월인석보』 권7, 8 초간본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 문헌의 정밀한 대조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월인석보』 권7, 8에 대해서는 보고를 미루고 『월인석보』 권9, 10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현재 전하는 『월인석보』 권9, 10은 원래 무애 양주동 선생님 구장본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월인석보』 권9의 현재 상태(영인본 기준)는 앞부분이 결실되어 5ㄱ부터 있고(앞부분의 일부가 남아 있음), 『월인석보』 권10은 82장이 낙장이며 122ㄴ 이후가 결락되어 있다.

미타사 복장 전적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월인석보』 권9: 총 5장(1ㄱ, 2ㄴ, 2ㄱ, 2ㄴ, 3-1ㄱ, 3-1ㄴ, 3-2ㄱ, 3-2ㄴ, 4ㄱ, 4ㄴ)
『월인석보』 권10: 총 2장(82ㄱ, 82ㄴ과 미상ㄱ, 미상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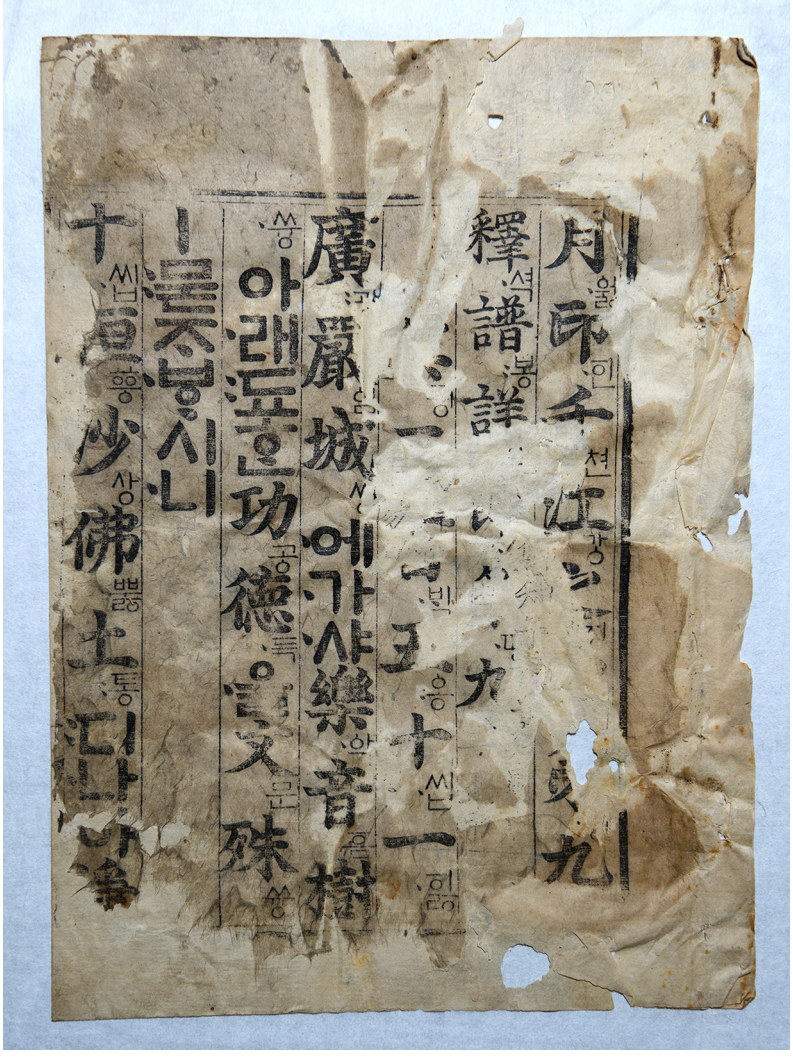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부언해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월인석보』 권9는 현재 초간본의 영인본은 4장이 결실되어 있어 5장 앞면(5ㄱ)부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4장 앞면(4ㄱ)에서 'ᄅᆞᆯ ᄀᆞᆯᄒᆞ야 니ᄅᆞ시니, 九'를 확인할 수 있으며, 4장 뒷면(4ㄴ)에서 '藥師十二願에 淨瑠(한자음, 방점 생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미타사 복장 전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4장이 아니라 5장이다. 『월인석보』의 경우 판각 후에 면수가 늘어가는 것은 종종 있

는 현상인데, 이들은 주로 협주를 보충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권9에서도 1차 판각 후 면수가 늘어난 부분인 '35上ㄱ, 35上ㄴ, 35中ㄱ, 35中ㄴ, 35下ㄱ, 35下ㄴ, 36上ㄱ, 36上ㄴ, 36中ㄱ, 36中ㄴ, 36下ㄱ, 36下ㄴ'은 모두 협주 부분이다. 그런데 미타사 복장 전적인 『월인석보』 권9의 앞부분 5장은 협주 부분이 아니라서 과연 이 부분에 판각 후 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월인석보』 권9를 조사하여 장차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편의상 잠정적으로 '3-1ㄱ, 3-1ㄴ, 3-2ㄱ, 3-2ㄴ'로 해 두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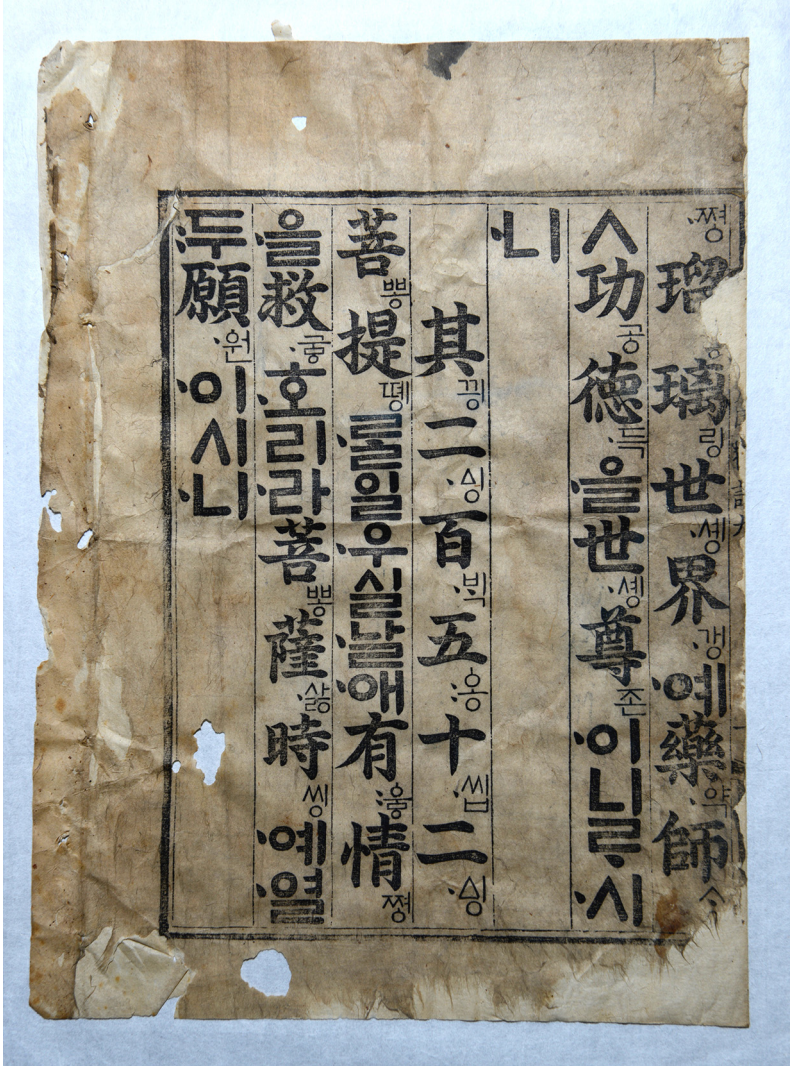
『월인석보』 권10의 경우, 현존하는 초간본인 한글박물관 소장 『월인석보』 권10에서 82ㄱ과 82ㄴ이 결락되어 있는데 이를 미타사 복장 전적에서 보충할 수 있다. 한편, 한글박물관 소장 『월인석보』 권10은 122ㄴ 이후가 결락되어 있어 『월인석보』 권10의 권미제를 포함한 그 이후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미타사 복장 전적에서는 권10의 일부로 보이는 '미상ㄱ, 미상ㄴ'의 한 장이 더 발견되었는데 장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상의 이 한 장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상ㄱ, 미상ㄴ'으로 표시하였다. 단 이 부분이 『월인석보』 권10의 122ㄴ 이후의 어느 한 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아래에 미타사 복장 전적 『월인석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권9에서 5장, 권10에서 2장의 사진을 제시한다.

『월인석보』 권9: 1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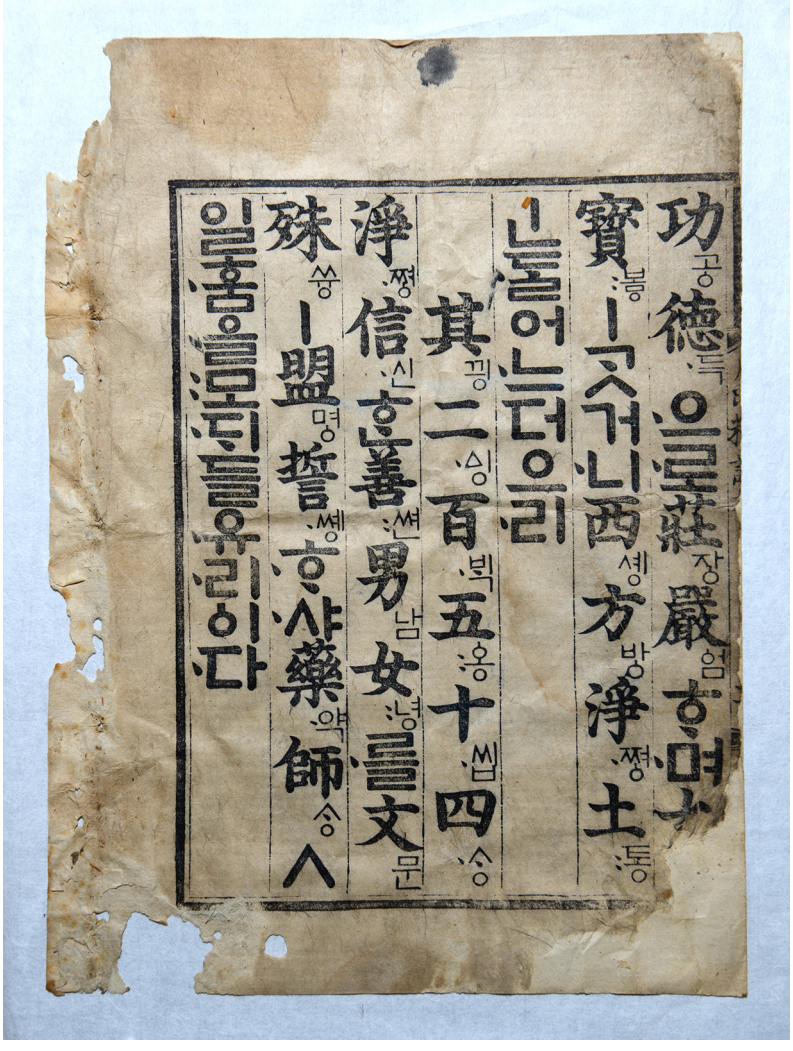
『월인석보』 권9: 1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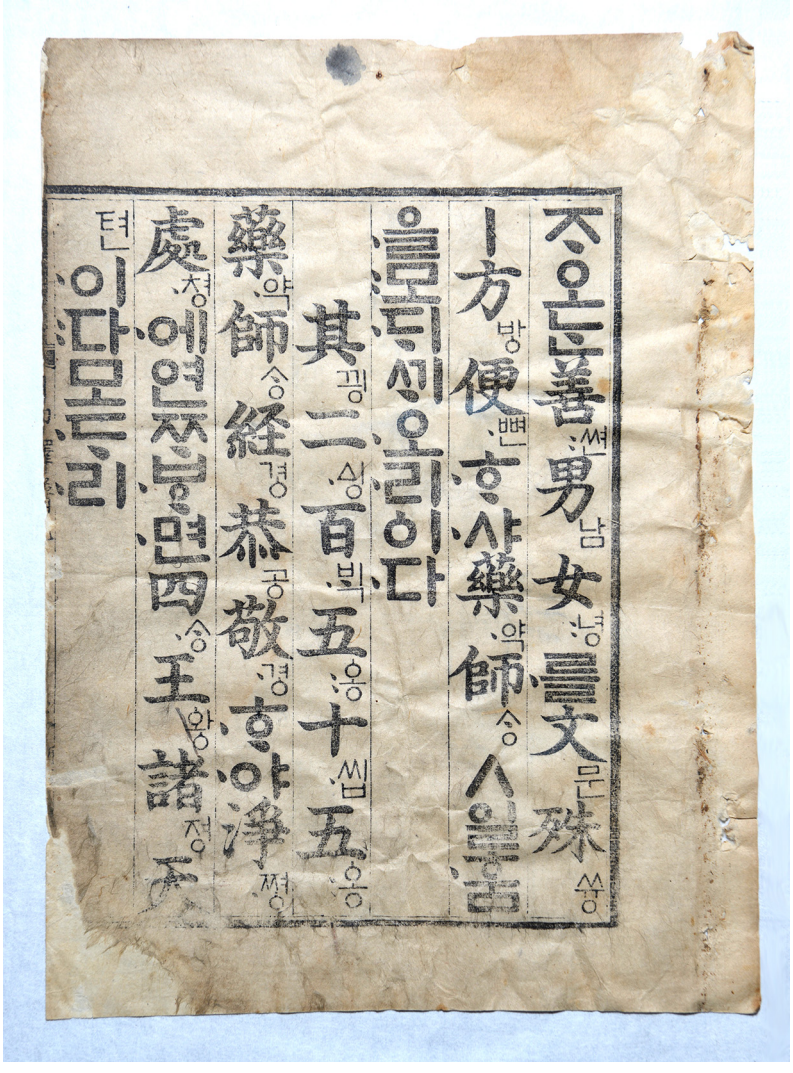
『월인석보』 권9: 2ㄱ



『월인석보』 권9: 2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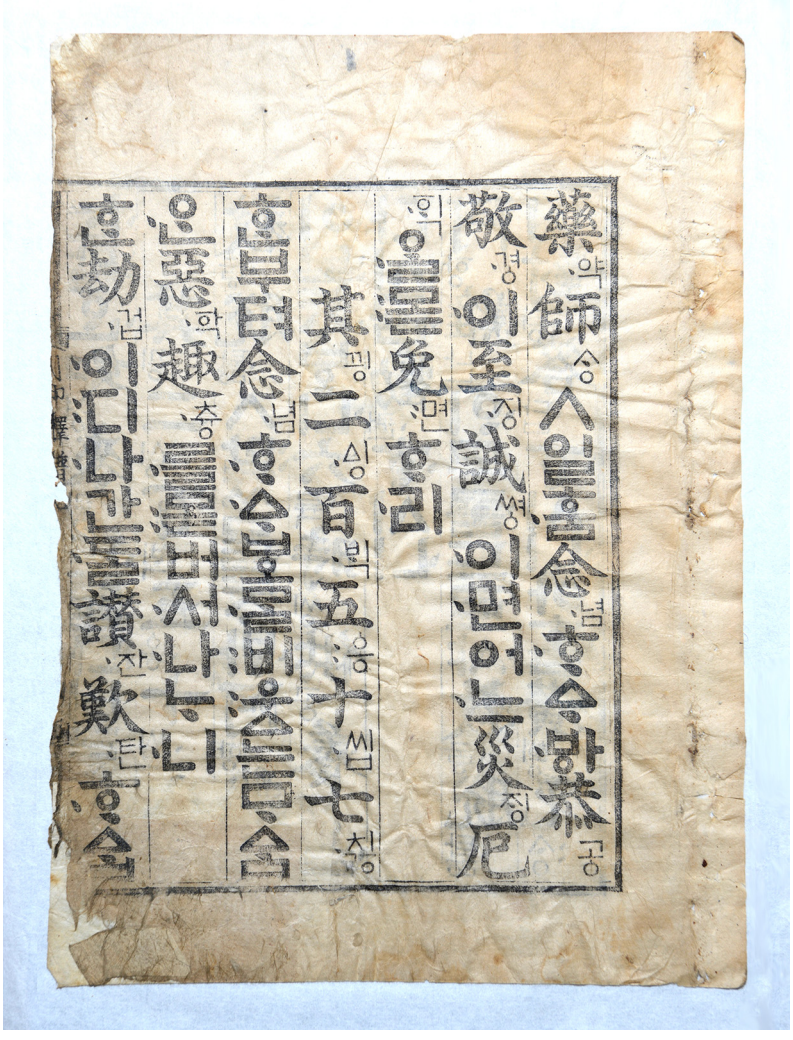
『월인석보』 권9: 3-1ㄱ



『월인석보』 권9: 3-1ㄴ



『월인석보』 권9: 3-2ㄱ



『월인석보』 권9: 3-2ㄴ



『월인석보』 권9: 4ㄱ



『월인석보』 권9: 4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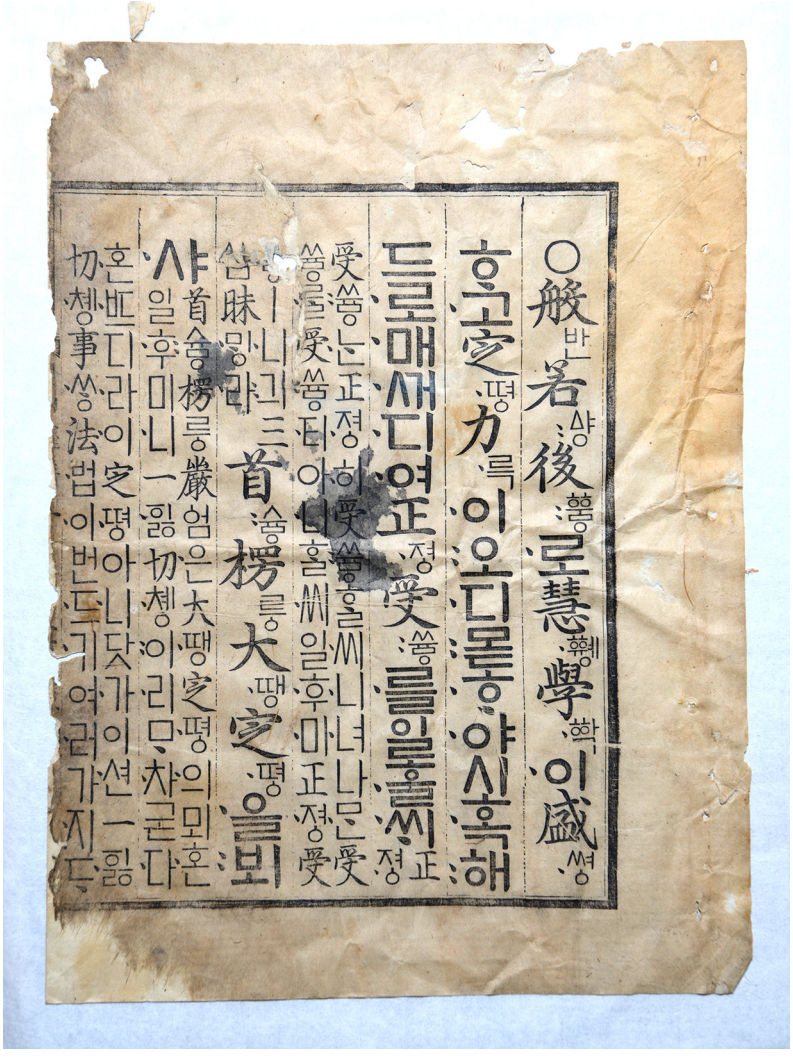
『월인석보』 권10: 82ㄱ



『월인석보』 권10: 82ㄴ



『월인석보』 권10: 미상ㄱ



『월인석보』 권10: 미상ㄴ

